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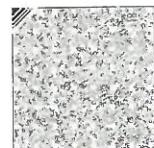
시울주보

제2305호 2020년 9월 27일(가해)

연중 제26주일(이민의 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소서.

제1독서 | 예제 18,25-28

화답송 | 시편 25(24),4-5,6-7,8-9(◎ 6 ↳ 참조)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

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 필리 2,1-11

복음환호송 |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 마태 21,28-32

영성체송 |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생각을 바꾸어… ‘좋은 이웃’ 되기

이광희 베드로 신부 |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제가 함께 만나고 사목하는 분들은 ‘국내 이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이주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 이주민의 자녀들(다문화) 그리고 난민들입니다. 이들은 때론 이유 없는 편견과 오해 그리고 차별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특히나 난민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목숨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의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 먼 나라 이곳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종교에 대한 편견,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들 그리고 그들의 피부색으로 인해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주민 활동가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철저한 준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좁은 도로의 횡단보도 하나라도 파란불을 지키며, 길거리에서도 침도 뱉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작은 잘못 하나로 추방되거나 그것이 이유가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누구 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106차 이민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이주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돋는 것이 각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교황께서는 요셉,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

신하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이주민’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로데의 박해를 피하여 강제로 피신하셔야 했던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주민’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얼굴에서 굽주리시고, 목말라하시며,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나그네이시며,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해야 합니다(마태 25,31-46 참조·제106차 이민의 날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담화 일부 발췌).

오늘 복음에서 맏아들은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포도밭에 일하러 갔다”(마태 21,29 참조)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차별의 마음을 바꾸어, 세상이라는 포도밭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가련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지 모르는 외국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입니다.

올해 이민의 날의 주제 성구는 “모든 이를 차별 없이 환대하는 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한 4,8 참조)”라고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차별 없는 환대와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그들도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제2독서인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지니셨던 이방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샤르체릭, 키르기즈스탄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마태 21,31)

칠후 같은 어둠 속에 흘로 섰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길을 수록 밤하늘의 은하수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삶이 어둡고 지난할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또렷해지는 것처럼, 들음을 어렵지 않습니다. 들음을 실천하는 일, 누구든 그 어렵고 벼거운 일을 하고자만 한다면 세상이 칠후 같은 어둠뿐인지도라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빛을 내어 비추어주실 것입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코로나와 함께

“휴~ 다 끝났네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13일 주일 저녁 9시 반, 한국 최초로 아니 세계 최초로 열린 ‘비대면 ME디퍼주밀’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월드와이드 매리지엔카운터 한국협의회 총무인 저희 부부는 지원팀으로 참여해 토, 일 이틀간 발표팀(한국ME 대표사제와 대표부부)과 전국 10개 교구 소속 참가부부 21쌍, 사제 열한 분과 내내 함께했습니다. 요즘 널리 사용되는 줌(zoom) 화상회의를 주관하고, 발표팀과 호흡을 맞추며 이틀을 초긴장 상태로 보내서였는지 마무리 되는 순간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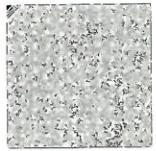
가톨릭교회의 부부일치 운동 ME(Marriage Encounter)는 1950년대 말 스페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던 가브리엘 칼보 신부님은 청소년 문제가 대부분 가정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가정을 건강하게, 특히 부부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ME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62년 바르셀로나에서 첫 프로그램이 열렸고, 한국에서는 1976년에 ME주말이 시작되어 지난해 말까지 99,728 쌍 부부와 사제 1,881명, 수도자 2,005명이 ME주말을 체험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당 미사가 중단되기도 했고, 구역반모임과 신심단체 모임도 멈춘 상태입니다. ME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해 ME주말을 개최한 교구들도 있지만, 3월 이후 대부분의 주말 프로그램들이 취소되었지요. 발표팀으로 봉사하게 될 사제와 부부들을 위한 디퍼주말(Deeper Weekend)도 몇 차례 취소되다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비대면 주말을 기획했고, 오랜 기간 준비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팀과 참가자들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활히 소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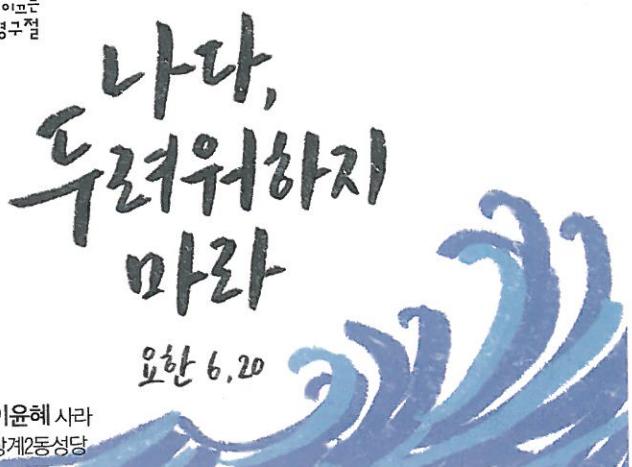
정석 예로니모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고 공감할 수 있을지, 참가자들의 화상회의 접속에 어려움은 없을지, 한 곳에서 숙박하는 대신 각자 집에서 집중하면서 참여할 수 있을지 등 걱정이 많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사전점검을 여러 번 거친 덕에 모험과도 같은 첫 비대면 디퍼주말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직접 참가했던 사제와 부부들의 생생한 의견을 더해 한국ME 상임위원회에서는 <비대면 ME주말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15개 교구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이 시대 우리 인류에게 파견된 예언자일지 모릅니다. 이제 더는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동식물에서 바이러스까지 인류와 함께 살 귀한 생명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참회하되, ‘코로나 이후(Post Corona)’를 그저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꽤 길어질지 모를 ‘코로나와 함께(With Corona)’ 사는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을 적절히 병행하고 결합하는 ‘오투오(O2O: Online to Offline)’를 우리들 삶과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디퍼주말에서 저는 그 희망을 봤습니다. 작은 희망이 단단한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이윤혜 사라
상계2동성당

1998년 감독_고레에다 히로카즈

원더풀 라이프



과잉의 시대와 팬데믹의 충돌, 그리고 <원더풀 라이프>의 화두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하나만의 소중한 기억을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원더풀 라이프>가 던지는 이 화두는 숨 가쁘게 질주하는 문명의 물결에 정신없이 떠밀려온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나온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이 화두는 또한, 팬데믹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사회와 문명을 새로운 시선으로 응시하게 합니다.

<원더풀 라이프>는 우리 시대가 처한 근원적인 문제들에 거창한 담론을 제시하거나 확정적인 답을 주는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여울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듯 삶의 근본을 친찬히 들여다보는 영화입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 죽은 사람들이 일주일 간 머무는 가상의 중간역 ‘림보’. 죽어서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단 하나만의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그 기억만을 간직한 채 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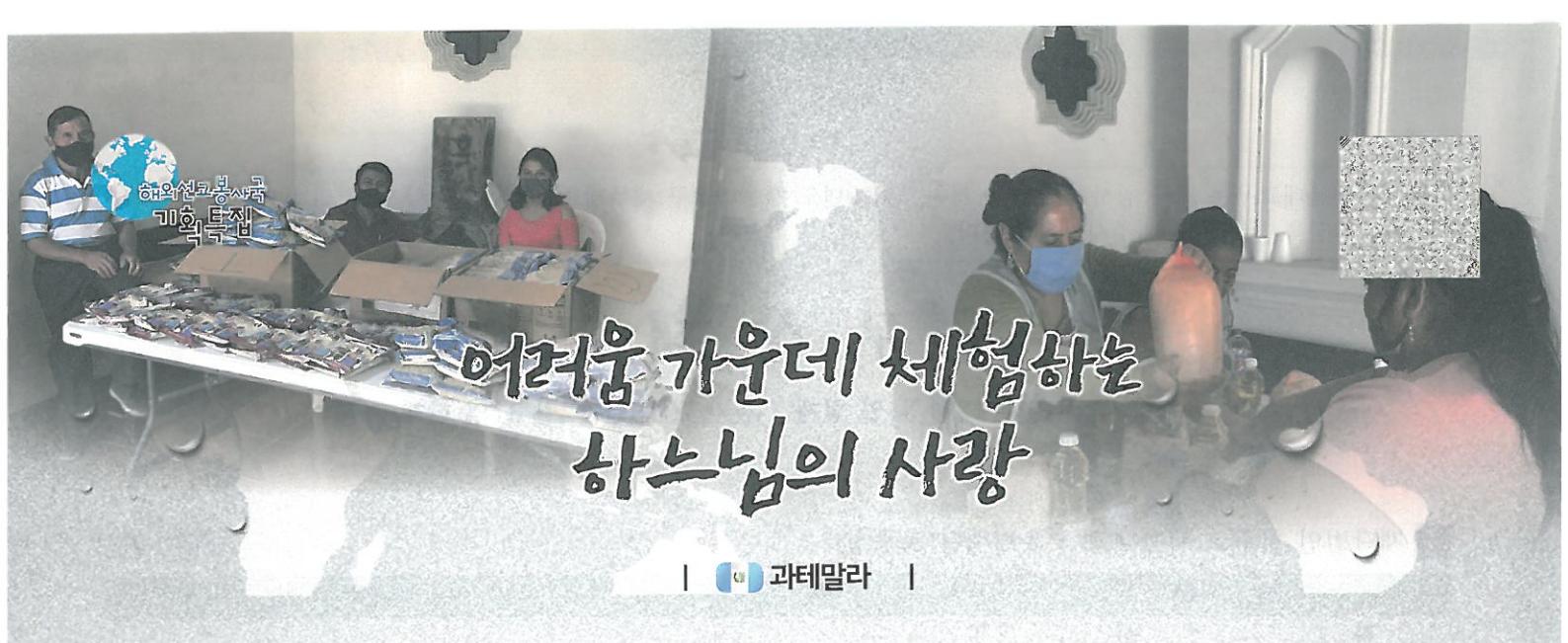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을, 어떤 인물은 곧 바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떤 인물은 쉽게 결정하지 못해 애를 먹기도 합니다. 어떤 인물은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하고 어떤 인물은 선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회한과 부끄러움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시간의 속살 깊숙이 숨어있던 상처들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응시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성찰과 선택의 과정을 거친 후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과 화해합니다. 지상과 천국의 중간역인 ‘림보’를 떠나 천국이라는 영원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러한 깨달음과 화해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완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선택한 기억들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향한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창한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거나 요란한 구호를 외치는 순간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자신도 모르게 스쳐 지나간 일상의 아주 소소한 순간들을 선택합니다. 이들의 성찰과 선택, 깨달음과 화해의 과정을 보면 과잉의 시대 한복판에서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은 묻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고 이루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마음에 없는 너무 많은 제스처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삶과 행복의 본질을 망각한 채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든 이들이 팬데믹과 함께 과잉의 시대도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교우분들께 하느님의 위로와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곳 과테말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 싶고, 하느님의 천상잔치인 미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한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기에 아직도 성당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미사도 저 혼자 개인으로 봉헌하고 있고, 그저 방송으로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가끔 신자분들의 얼굴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가난한 신자분들에게 기본적인 음식 재료를 나누어 줄 때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옥수수로 만든 토르티야, 검은콩, 쌀 등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340여 가정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몇 봉사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성당에서 이런 걸 나눠준대!” 하는 이웃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뺑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자비로우면서도 거룩한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알음알음으로 보내주신 경제적인 도움과 이곳 몇몇 신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어려움은 분명히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즘 많이 느끼고 묵상하고 있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느님의 사랑이 현존하고 계시며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과 거룩한 섭리 안에서, 항상 하느님께 마음 깊이 의지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 리노 | 과테말라 선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교구 참사회 심의를 거친, '2019년도 서울대교구 재무제표'를 공시합니다. 봉헌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구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전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교구청)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자 산		
I . 유 동 자 산	42,559,375,885	90,842,183,037
현 금 과 예 금	41,864,686,017	89,146,439,077
유 가 증 권	7,536,620	7,536,620
단 기 대 여 금	189,608,000	0
미 수 금	1,302,200	0
가 지 급 금	298,912,108	1,489,536,370
선 급 법인 세	197,330,940	198,670,970
II . 비 유동 자 산	709,945,993,269	684,789,314,471
1) 투 자 자 산	6,252,508,020	6,208,808,020
장 기 대 여 금	4,346,677,960	4,296,677,960
보 증 금	1,760,747,600	1,760,747,600
전 신 전 화 가 입 권	138,066,460	138,066,460
기 타 자 산	0	6,300,000
퇴 직 전 환 금	7,016,000	7,016,000
2) 유 형 자 산	703,693,485,249	678,580,506,451
토 지	476,578,014,813	469,497,550,973
건 물	225,184,130,809	192,961,592,427
구 축 물	0	473,117,008
기 계 장 치	0	338,481,352
차 량 운 반 구	283,703,330	283,703,330
비 품	1,245,703,297	1,222,258,311
건 설 중 인 자 산	401,933,000	13,803,803,050
자 산 총 계	752,505,369,154	775,631,497,508
부 채		
I . 유 동 부 채	7,297,061,968	9,055,894,231
단 기 차 입 금	5,000,000,000	5,000,000,000
예 수 금	937,989,272	1,421,694,022
예 수 보 증 금	916,000,000	916,000,000
가 수 금	443,072,696	1,718,200,209
II . 비 유동 부 채	4,621,738,075	4,435,514,090
장 기 차 입 금	1,025,071,680	1,315,071,680
퇴직급여충당부채	3,596,666,395	3,120,442,410
부 채 총 계	11,918,800,043	13,491,408,321
자 본		
I . 기 본 금	248,900,897,490	248,900,897,490
II . 적 립 금	40,602,990,148	40,602,990,148
III . 차 기 이 월 금	451,082,681,473	472,636,201,549
자 본 총 계	740,586,569,111	762,140,089,18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52,505,369,154	775,631,497,508



수지계산서

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교구청)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I. 일반수입	83,364,162,284	78,708,619,274
봉현금	50,793,663,859	53,411,621,780
후원금	5,171,550,000	4,871,300,000
목적현금	10,176,363,288	11,955,892,365
기부금	5,184,798,562	1,713,738,160
부속기관수입	5,940,454,082	1,203,206,516
기타수입	6,097,332,493	5,552,860,453
II. 특별수입	2,551,998,866	10,819,694,654
보조금수입	2,551,998,866	10,819,694,654
III. 선교사업운영비	88,761,704,590	56,128,681,389
선교비	35,356,907,414	37,454,944,344
성무활동비	11,400,807,654	10,384,028,281
교육비	1,142,980,281	1,086,177,515
사제양성비	1,293,840,000	1,278,351,200
자선찬조비	39,170,460,586	5,345,842,383
행사비	396,708,655	579,337,666
IV. 일반운영비	17,890,078,276	16,501,944,682
인건비	8,207,067,795	7,754,471,081
여비교통비	32,633,687	47,715,654
회의비	8,391,700	9,137,200
운영비	2,625,428,506	2,894,070,838
세금과공과	4,261,884,912	3,357,203,785
복리후생비	1,876,894,670	1,607,111,340
조경및기타시설비	565,178,996	483,675,680
기타	312,598,010	348,559,104
V. 운영수지차액	△20,735,621,716	16,897,687,857

오늘(9월 27일)은 ‘이민의 날’입니다

‘제106차 이민의 날’ 담화문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월 1일(목)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도록 돌보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10월 2일(금)은 교회 전례규정상 금육재를 지켜야하지만, 명절 연휴이므로 교구장 명의로 금육재를 관련하여 드립니다.

9월 30일(수)~10월 2일(금)은 ‘추석 연휴’로 교구청 각기관 휴무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8년 9월25일 박동현 마르코 신부(55세)
- 2002년 9월22일 박고빈 시메온 신부(67세)
- 2004년 9월25일 박고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8세)

한반도 평화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권오영 신부	해외유학	면직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2020년 9월 14일)

- ①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와 성직주교위원회의 총무로 신우식 토마스 신부 (주교회의 사무국장)를 임명하고,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총무로 김 종강 시몬 신부(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리국장)를 임명
- ②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 주교 연수 주제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사목 방향: 성사(특히 세례, 견진, 병자, 고해 성사)의 거행과 사목적 방향을 중심으로”로 정함
- ③ 각 교구는 교회 홍보용, 비상업적인 용도로 주교회의 저작물(교황청과 주교회의 주요 소식, 교황 담화)을 사용할 때에 한해, 개별적인 저작권 승인 절차 없이 주교회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함
이에 대해, 각 교구가 ‘교구 비영리 공식 홈페이지와 SNS 운영 현황표’를 제출하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저작물 사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로 함
- ④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사업 심의,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사업과 시복 추진 관련 논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후속 장기 사목 계획에 관한 논의, 한국 천주교 차세대 본당 양업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 심의, ‘한국 사제 양성 지침’(개정안) 심의, ‘청소년 사목 지침서’(안) 심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연장에 대한 논의, 주교회의 임원 선출, ‘기톨릭 영상 교리’(최종) 보고 등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 목록을 확정

교구청일정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휴관일정: 9월28일(월)~10월6일(화)

소방사목 선교봉사자 모집

내용: 교육과정 수료 후 파견

대상: 견진받은 60세 이하의 교우

문의: 02)727-2078, 010-4799-2078 직장사목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2020/가을)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ulture.catholic.or.kr)참조 / 전화문의 사절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10월8일~12월3일(목) 19시30분~21시(9회)
‘청년’ 헬로우기도 2020	매월 첫 번째(화) 19시30분~21시
‘청년’ 삶의 역사 쓰기	10월7일~25일(수) 19시30분~21시(4회)
꼴림 – 바오로딸 기도학교	10월1일~11월9일(금) 10시30분~11시30분(6회)
캘리그래피 – 기초반	10월6일~27일(화) 19시~21시(4회)
스테인드글라스 – 동태이프기법	10월6일~27일(화) 14시~16시(4회)
스테인드글라스 – 유리모자이크 A반	10월6일~17일(금), B반 10월30일~27일(금) 19시~21시(4회)
도자기 성물 – 흙기법	10월7일~29일(수) 14시~16시(4회)
도자기 – 청화기법	10월7일~28일(수) 19시~21시(4회)
프로크리에이트 가톨릭 일러스트	10월6일~27일(화) 19시~21시(1회)
로사리오성월 소품공예	10월7일~14일(수) 19시~21시(1회)
칼럼바 – 기초반	10월7일~29일(수) 14시~15시30분(4회)
해금으로 드리는 기도 – 연주반	10월7일~30일(수) 14시~15시30분 / 저녁 19시30분~21시(4회)
대림 소통공예 – 기도 담은 대림초	평일 11월1일(금) 10시~13시 / 주말 11월2일(토) 14시~17시(1회)
성탄 소통공예 – 기쁨 담은 성탄초	평일 11월3일(금) 10시~13시 / 주말 11월3일(토) 14시~17시(1회)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2021년 명동대성당 흔인예약 안내

1월~2월: 7월29일(수)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화~일)

3월~12월: 10월23일(금) 14시, 명동대성당

장소	요일	시간
		금요일
대성당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필수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흔인성사

안내 → 흔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계신 분들(한인성당 교적자 제외)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흔인성사를 받기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반

드시 혼인 추첨 당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첨 이후 흔인예약 현황은 11월4일(수)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대상: 자살로 소중한 이를 잃은 모든 분

문의(신청):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1) ‘슬픔 속 희망찾기’ 1박2일 피정

때: 10월9일(금) 14시~10일(토) 14시

인원: 약 20명(전화 면담 접수)

지도: 박종인 신부(예수회)

2) ‘상실에서 희망으로’ 유가족 8회기 모임

때: 10월22일~12월10일 매주(목) 19시(8회)

곳: 가톨릭회관(명동)

직원모집

과달루페외방선교회 직원 모집 / 문의: 010-5182-3325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청소·빨래(주5일 근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모집

분야: 사무직 1명, 조리직 1명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10월30일(금) 14시까지 서류 접수

이메일(mano@cbck.kr) 문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인준단체 일람

모임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때: 10월7일~10일, 10월31일~11월2일, 11월11일~13일, 11월16일~19일, 11월22일~25일, 12월5일~7일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효소단식으로 몸 속에 쌓인 독소·노폐물·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 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지도: 노경덕 신부(본원) / 문의: 010-9363-7784 신글라라
때, 곳: 10월9일~12일·10월23일~26일·11월13일~16일·11월27일~30일·12월4일~7일·12월18일~21일 (금~월),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돌아보며 깨닫기 / 문의: 010-3173-2665

돌깨생활 피정	다음카페: 돌깨생활피정	최영민 신부 (예수회)
훈인성소찾기 피정	다음카페: oh oh my half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2차 11월6일(금)~14일(토) 문의: 061)373-3001,
제83차 11월27일(금)~12월5일(토) 010-3540-9001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교육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접수): 010-9099-2337 / 홈페이지: www.jesumaum.org
예수마음 기도 2박3일 10월16일~18일, 4박5일 10월2일~6일, 8박9일 10월2일~10일, 30일 피정 9월30일~10월31일
이냐시오 영신수련 2박3일 10월2일~4일·10월16일~18일
내적여정 에너어그램 기본 10월23일~25일

수도전통 렉시오디비나(상지피정집)

말씀 안에서 체험되는 깊은 하느님과의 만남
소그룹·선착순 접수 / 개인·소그룹 피정합니다
문의(접수): 010-9401-9374 마리노아 수녀, 02)923-3547

11월3일~12월22일 매주(화) 10시~12시30분(8회)	회비: 12만원
11월5일~12월24일 매주(목) 14시~16시30분(8회)	
1 렉시오기초반 11월20일(금) 16시~27일(일) 15시	회비: 16만원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

때: 10월16일(금)~24일(토) 8박9일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횡성)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빠와 함께하는 자연 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매주(토) 14시~(일) 14시,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주최, 경남 고성군) / 문의: 010-2816-1986

교육

성물조각·영성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흑카페마스터자격증반

노틀담실천교리 월요반 연수

대상: 교리교사, 예비자 교리, 견진교리 담당자
때, 곳: 10월19일·11월9일·11월23일·12월7일 14시~17시30분, 노틀담교육관(종로구 북촌로)
문의: 010-8829-6292(www.ndrpp.or.kr)

복음화학교 141기 온라인 개강

복음화학교 141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공개)에 초대합니다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지협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때: 10월12일(월) 10시·10월14일(수) 19시·10월15일(목) 14시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다—목요신학강좌

때, 곳: 10월22일~11월26일 매주(목) 19시30분(5주), 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회비: 오프라인 7만원(선착순 20명), 온라인 5만원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10월22일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주원준 박사
10월29일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길, 공동합의성	최현순 박사
11월12일	교회, 세상을 다시 보다	장동훈 신부
11월19일	인생에서 만나는 하느님 사랑, 성사	정희완 신부
11월26일	교회로 사는 기쁨	현재우 박사

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상담심리강좌, 대화법, 마음돌봄영성강좌, 영성독서, 가정·인문·진로독서 / 문의: 02)844-0388

개강: 10월 / 곳: 전철 7호선 신풍역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0월12일(월) /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해외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학생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접수: 9월23일(수) 9시~28일(월) 18시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전형: 성직자추천전형 등 8개 전형

문의: 051)510-0705 담당 권혁민 입학사정관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모집인원: 3,017명(수시 2,635명)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가톨릭지도자추천(간호·심리·사회복지·경찰행정 등)

총장: 김정우 신부 / 문의·입학상담: 053)850-2580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생)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3D프린팅·도예 등), 문화자립교육,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지원교사모집: 검정고시 교과 멘토링, 탁구동아리 지도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신월3동) / 02)2691-6543

2021학년도 노비파스 음악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대상: 사회복지(양육)시설 거주 여학생

인원: 2021학년도 중학교 1학년 12명

곳: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210번길 325

모집기간: 10월16일~26일 / 문의: 031)584-1130 교무실, 070-8953-1009 행정실, 070-4129-7072 교감소속: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소문 박 네거리 순교성지 10월 특강

때: 매주(금) 15시30분~16시30분 / 문의: 02)3147-2402

곳: 성 정하상 기념경당 / 주제: 기도-하느님과 나

10월9일	홍성남 신부	10월16일	사승환 신부
10월23일	마진우 신부	10월30일	조명연 신부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기피·강박) 종합심리검사

성가정입양원(서울기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64-4741~3

국내입양 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 www.holycfac.or.kr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문의: 041)950-1008

천주교 대전교구 / 주일·평일 미사 및 봉성체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안심병동' 신경과 개설 운영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상처입은 마음치유와 가족관계의 회복: 10월20일
~12월22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10주)

끼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가족-심리 정서 치료

대상: 가정폭력피해자 가족
회비: 없음(바보의나눔 지원)
문의: 02)2202-7806(cafe.naver.com/jscounseling)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야간진료 (화) 18시~20시 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의원 완화의료센터

호스피스 안내: 입원형, 가정형 / 문의: 02)802-9313, 9311
함께할 간호사 모십니다

강서푸드뱅크·마켓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후원금, 식자재(쌀·라면·조미료 등) 및 생활용품 / 후원문의: 02)2635-1377, 02)2663-1377
후원금 계좌: 신한 100-026-821055 강서푸드뱅크마켓

2021년 중림동약현성당 혼인 예식 추첨 안내

추첨: 10월18일 오후 3시(안내 후 추첨), 중림동약현성당 / 문의: 02)362-1891(www.yakhyeon.or.kr)
준비물: 교직 사본 / 예약금 60만원(카드 불가)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2021년도 1월, 2월 혼인예식은 홈페이지 확인 후 선착순 예약받습니다

성라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가족세우기	매주(토·일) 슬기로운 부모생활
전문 심리치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가족 개인(분노·우울·불안·부적응) 종합심리검사 / 비대면 화상상담 가능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수지에너이 그램	가족치료, 자기인식, 본질 찾기와 상처 치유 회복을 위한 작업(상시)
청소년 코칭	생활과정의 문제, 가족안에서의 관계, 사고 및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훈련을 통해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게 적응, 성장하도록 돋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상시)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심리정서 (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노인공동가정생활 이용자 접수

시설명: 바오로성모의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여성분
곳: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번지
문의: 010-9428-2247 담당자, 02)381-7510

바오로딸 혜화나무

바오로딸이 혜화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때, 곳: (월)~(일) 12시~21시, IBK기업은행 대학로 지점 앞 / 개원 기념 이벤트: 혜화나무 인스타 참조 문의: 02)6367-0800, 0801(fsp250@pauline.or.kr)
인스타그램: @heawhanamu0908

제26회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 추천 안내

추천부문: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대상), 모범 근로자상 후보 / 추천: 추천서 양식(요청시 우송)에 내용 기재 후 11월9일(월)까지 사무실로 송부 시상식: 12월12일(토) 15시30분, 명동대성당 문의: 02)755-7060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901호)

유관단체 일정

햇살 학부모 상담전화(햇살사목센터)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님의 상담을 받습니다
운영시간: 매주(월~목) 10시~13시 / 상담전화: 02)744-0841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공황, 불안, 우울, 가족, 부부, 영성
소장: 이찬 신부(콜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문의: 010-9295-5912 / 홈페이지: www.dstcoun.net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개인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미술심리상담사 2급	10월23일~11월20일 매주(금)
자격 과정	10시~15시(5주, 6명 제한)

서울주보 재신내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한 단체에서 한 달에 4번까지 게재가 가능합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룸반외방선교회	10월11일(일) 9시30분~13시	본부(돈암동,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10-9937-0901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시	본원(정릉)	010-4096-5973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pnunskorea@catholic.or.kr)
한국외방선교회	10월4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교우끼리 거래는 간접 선교입니다. ★

성신 공인중개사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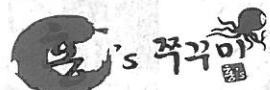
주택 / 빌라 / 아파트 / 상가 / 토지 / 사무실 / 오피스텔
마포구 동교로 270(연남동)

☎ 332-4455, 010-3688-3132

대표 함경근 (다비드)



진지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5
장평빌딩 1층 (창천동 72-5)

신촌점

Tel. (02) 326-8260

김형숙 (로사) ☎ 010-9470-5685

IMI 금속인테리어

Total Interior Group

리모델링, 상가주택, 원룸 (가정집, 아파트)
창호 (LG, 한화, 원체, 하이센, 병법장) 팬넬, 철구조물 전문시공업체

☎ 324-6730, 010-3614-6432

대표 변경섭 (사도요한)

백세내과의원

소화기질환 | 혈압, 당뇨
간질환 |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 종합건강검진
공免건강검진 | 5대암 검진

내과질환전문 · 국가암검진 · 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

■ 평일 : 오전 8:30 ~ 오후 6:00

■ 점심시간 : 오후 1:00 ~ 오후 2:00

■ 토요일 : 오전 8:30 ~ 오후 2:00

■ 일상휴일 : 휴진

☎ 354-1088 (NC백화점 불광점 맞은편 대홍빌딩 3F/4F)

원장 박남숙 베로니카

傳統 中華料理

王 家

서울시 서대문구 연의로 48-22
02-325-8985 (구 모전돼지갈비)

왕덕리(사도 요안)

한우 명가

국내산 한우의 자존심
서대문구 연희동 353-111
대우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 3143-6832, 010-8939-2198
대표 김경만 (베네딕토)

02)335-1075
장한의원

원장
장민혁
(글라라)

자동차 사고보험/ 척추, 관절 통증/
비만/왕뜸/기혈순환치료/아로마치료

마포구 연남동 226-29, 2층(연남동 수협 밑, 동진부동산 2층)

아리따움 (ARITAUM)

한율, 아이오페, 라네즈, 마몽드, 오딧세이

사러가 쇼핑센터 내 2층

(아모레 화장품 전문점)

☎ 3273-5772, 010-9518-5004

대표 임정순 (마리아)

연희신용협동조합

- 1인당 예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
- 행복한 내일을 위한 신협의 대출서비스
- 어려울때 힘이되는 실속 보험서비스

연희동본점 02-323-2636 홍제동지점 02-394-2636



미래꽃백화점

대표 : 김남현(베드로) HP: 010-3733-0200

T: 1577-0035 F: 02-3147-0035

www.theflowershop.co.kr

경조화환, 동서양란, 꽃바구니, 관엽화분

금매 2억 4천 만 원 쓰땅

- 강화군 하점면 2차선도로에 근접한 토지
- 남향 계획관리 270평 (대지150평/전120평)
- 확트인 조망/편리한 교통(버스정류장 3분)
- 전세자금으로 내집지어 이주하실분 최적
- ☎ 777-1368, 010-7378-8896

삼정공인중개사사무소 / 신미카엘



HYUNDAI

믿음과 정성으로 평생~

현대자동차 사직대리점

이태범 바오로

010-4875-5224

